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市民에게 없어서는 안될 신문으로



김인만
포천상공회의소회장

포천의 대변자로서 항상 지역 언론문화 발전에 노력하시는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재창간 4주년이라는 역사를 지닌 지역신문으로서 그동안 포천시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북부권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진실한 신문, 정확한 보도, 성실한 자세를 고집하며 독자들의 참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지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이야기들을 찾아 독자들에게 제공함은 물론 어렵고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살수 있는 밝고 긍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알찬 내용을 전달하는 희망과 비전을 주는 견인차 역할과 햇볕 역할을 해주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경제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로 인해 기업 환경에 큰 영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과 북핵문제, 노사갈등과 유류노동력 부족, 고유가 등 우리의 경제환경은 그 어느때보다도 매우 불안정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반딧불이 되고 지적하여 이끌어준 파수꾼 역할과 대변자로서 언론의 참여가 더욱 절실하며, 단순한 사실 보도만으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만족하지 말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지역 언론의 사명이고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항상 지역을 지키며 지역을 선도하는 진정한 '포천신문'이 되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시민이 바라는 신문, 시민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신문으로 매진하길 기원합니다.

주민과 함께 살아숨쉬는 新聞 되길



이만구
포천문화원장

지역정도의 중심에서 언제나 바른 뉴스를 지향하는 울퉁한 길을 걸은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큰 뜻을 펼치기 위해 출발하여 4년을 한번도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북부지역에서 가장 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정감 어린 매체로

성장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며 노심초사 애써오신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재창간 당시 "지역발전에 봉사한다"는 약속을 지키며, 오늘의 재창간 4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불철주야 애써오신 포천신문 가족모두의 피땀 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우리고장만이 갖고 있는 역사와 전통 등 다방면에서 견인차 역할을 다하고 있음은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포천시민을 위한 충실한 대변은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향토색 짙은 생동감 넘치는 양질의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으로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수많은 미디어가 난무하는 지금의 시대에 중앙의 거대 언론의 천편일률적인 보도가 아닌 지역민들의 삶의 체취가 묻어나는 살아있는 보도라 애독자와 지역주민의 사랑을 독차지 할 것이며, 포천신문이 지향하는 "주민과 함께 살아 숨쉬는 신문"으로 더욱 성장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포천신문사 최호열 발행인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신문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북부의 명실상부한 신문사로 成長



박일서
포천시생활체육인협의회회장

중요로운 결실의 계절인 10월에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 기념을 포천시 생활체육동호인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생동감 넘치는 지역뉴스를 언제나 바른 뉴스로 전달하는데 공헌하신 최호열 발행인과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포천신문은 1990년 1월 15일에 창간을 시작으로 2000년 10월 25일 재창간을 하였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시사와 관련하여 포천의 지역발전과 지방자치의 언론매체로서 경기북부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언제나 바른 뉴스를 고집해온 경기북부지역의 명실상부한 신문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 실시간 일어나는 생활체육현장을 동호인과 독자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관심과 활성화에 앞장서는 신문사의 역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생활체육현장의 실태를 다양하게 전달해 주고, 독자들의 관심에 여과하지 않는 전국 최고의 지역신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폭넓은 기사와 신속 정확한 보도로 독자들에게 공정한 소식을 전달하는 신문사로 도약하길 당부 드립니다. 경기북부 지역 정론지로서 포천신문이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 나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포천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 기념일을 축하드리며, 포천신문최호열 발행인 및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生命 갖고 발전할 수 있길



김순호
경기도지역신문협회 회장

지역사회의 정구현과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꺾이지 않는 지역정도를 표방하며 재창간한 포천신문의 4주년을 회원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포천신문이 포천의 바른 목소리, 미래의 희망으로 자리잡아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포천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과 관심, 발행인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언론인, 언론사로서의 소명의식과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실천성인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천신문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는 부정부패가 없고 살기 좋은 포천시로 가는 확실한 자리매김을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신문은 주민들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먹고 삽니다. 지역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신문에게 힘이 되는 것은 주민들이 주는 애

정 어린 격려와 사랑의 책찌입니다. 풀뿌리 언론으로서 권력으로부터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으며 힘있고 소외 받는 계층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언론매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포천신문이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작게는 포천신문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우리의 언론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동안의 언론매체보다는 독자들이 원하는 새롭게 성장하는 대안매체로서 지역신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리며, 언론사로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뢰감과 일체감 키우도록 보도 기대



석혜승
포천경찰서경승실장보문정사 주지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호열 사장 및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호에 게재된 박윤국 포천시장과의 인터뷰 기사 중에 "지역언론이 살아야 지방이 살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글이 눈에 띄었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포천신문에 두 가지 바람을 가져옵니다. 첫째는 신뢰감 조성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면을 부각시키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언론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와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듯이 같은 값이면 좋은 면을 찾아서 신명나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신뢰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기사를 많이 실어 반목과 분열이 아닌 신뢰감과 일체감을 키울 수 있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천신문이 보다

피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발전은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신문을 기피하는 현상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기 보다는 감성적이고 자극적인 문구에 더욱 끌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우리 포천신문이 젊은세대들도 좋아 할 수 있는 기사와 지면 배정을 확대해서 젊은 독자층이 주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신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명한 가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씩 유쾌하지만은 않은 것은 시국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포천신문의 중추적인 역할과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지역주민 모두 포천신문 독자 되길



이문환
포천가족·성폭력상담소장

청아한 하늘 아래 코스모스 환하게 웃고, 형형색색 단풍잎 곱게 물든 가을에 항상 독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힘을 주시는 포천신문 최호열 발행인님과 실무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포천신문의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21세기는 지식의 사회입니다. 국내의 다양한 정보는 물론 세계적인 정보는 현실에서 살아가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지적 재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의 정보입니다. 포천신문은 중요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집까지 전달해주어 안방에서 지역의 이모저모 소식을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며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지역신문으로서의 자리를 굳혔다고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양성평등의 사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을 올바르게 진단하고, 이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시는 데 역량을 발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여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제시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지적하여 여성정책이 제대로 시행돼 여성주권이 회복되는 사회 건설을 위해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다 더 성숙하여 포천시민과 함께 발전하는 신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사회의 등불이 되는 新聞



박제훈
포천시장애인연합회 회장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포천신문의 재창간 기념을 축하합니다. 지역발전 위한 진정한 이정표가 되는 신문으로 기대가 큼니다. 다양한 문화와 각기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현대 사회속에서 다양한 욕구를 대변하고 자칫 소홀하기 쉬운 사회적 약자들을 살펴며 포천시의 어두운 구

석이 밝히며 그래서 포천시의 빛이 되는 신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포천 장애인들은 지역의 공민으로서의 포천신문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희망을 주는 신문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의 우리 사회의 현실은 경제적 상실감이 어느때보다 높다고 합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 등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정신이 무너지는 소리가 이 땅의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포천신문에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회의 공민으로서 신문됨,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를 싸매며, 희망을 일구어 내는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편향된 언론이 아닌 정도를 걷는 신문, 사육이 갖지 않는 신문으로 자기사명에 기쁜 신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문사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형성되어서 포천신문이 움직이는 곳에 희망의 깃이 나고 포천신문이 외치는 곳에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포천신문 재창간을 축하하며 참언론, 봉사하는 언론으로서 공동체의 정신을 기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抱川市 언론의 진정한 대변자 되길



원성기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천지사장

어리석은 사람은 생일이 되면 먹고,마시며 때 들씩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도 하지만 한편으로 조용히 지금까지 걸어진 길을 돌아보며 앞날을 설계합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창간정신을 되새겨 보는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언론 역할의 중요성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만일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할 때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게 됩니다. 짧은 지면관계상 긴 표현은 못하지만,오늘까지도 포천신문이 시민언론의 대변자로서 그리고 지역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왔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보든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함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포천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심을 갖

고 지역언론으로서 시민을 위한 알차고 유익하고 신선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과 더불어 환경, 문화, 복지 등 삶의 질 까지도 관심을 기울여 풍요롭고 행복한 삶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은 물론,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포천,15만 시민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언제나 바른 뉴스"를 기본정신으로 재창간하여 포천시민의 참언론으로 자리매김한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에 부쳐 걸어진 길을 되돌아 보며 앞날을 새롭게 설계하고 창조해나가는 포천시 언론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업문화 전달해주는 매체로 成長하길



장행주
한신단열 상무이사

포천신문은 우리 동네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어 언제나 반갑습니다.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과 사연이 나올 때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포천신문에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천신문을 10일마다 만나는

다. 이러한 내용도 신문에 실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좋은 것을 나누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일상에 바쁘게 살아가는 사업체에 중간 책임자로서 지친 심신을 달래주기도 하는 포천신문이 있어 즐겁습니다. 그전에는 신문사 기자가 공장을 방문할 때는 무척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나 포천신문은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고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함께 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봐도 반갑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재창간 4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포천신문은 인터넷으로도 포천신문이 늘 기다리는 신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의 크고 작은 행사는 물론 사건사고와 다양한 상식 등을 늘 보도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抱川市民 모두가 독자되는 신문되길



임경순
소흘읍 주민

주부들에게 유익한 포천신문이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여 더욱 다양한 뉴스의 전달매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주부들의 관심사인 정비구니 물가와 각종 봉사활동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문화강좌나 수지침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교육문제는 물론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한 뉴스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문가들로부터 관련분야에 대한 글을 게재하여 독자들이 보고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5만 포천시민 모두가 독자가 되어 더욱 생생하고 아름다운 뉴스가 보도되기를 기대합니다. 15만 시민 모두가 독자가 된다면 아주 다양한 뉴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독자가 되기 위해서는 포천신문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포천신문 재창간 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15만시민이 함께 보는 포천신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